

삶은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다

최효찬
칼럼니스트



수년 전 중국 산둥성 곡부(曲阜)에 갔을 때 공자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곡부 관청의 규모에 놀랐다. 공자와 그 후손이 관리하는 관공서와 거주지인 공묘(孔廟)와 ‘공부(孔府)’는 황제가 산 자금성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공부가 끝나는 지점에는 마치 후원(後園)처럼 200만㎡의 거대한 공림(孔林)이 있는데 공자와 그 후손들의 묘가 있는 곳이다. 공림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나무가 10만여 그루라고 하는데 후손의 묘가 10만기에 이른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공자의 묘 오른쪽에 오래된 나무가 우뚝 서 있다는 점이다. 봉분도 그리 크지 않아 우리나라 일반 봉분의 두세 배쯤 되는데 아담한 규모로 느껴진다. 중국은 묘의 봉분에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야 후손이 발복한다고 생각한



공자의 무덤

다고 당시 가이드가 설명해주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안동으로 도보여행을 다녀왔다. 퇴계 이황의 종택이 있는 토계에서 시작해 먼저 인근의 퇴계 묘소에 들렀다. 그런데 퇴계묘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보고 아연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퇴계묘소의 알림판이 너무 낡아 글자가 모두 지워져있었다. 묘소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있는 이정표가 전부였다. 조선 최고의 대학자라는 퇴계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요즘 지자체마다 관광명소를 상품화하느라 요란한데 안동시에서는 퇴계묘소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문득 잘 단장되고 관리되어 있는 파주의 율곡 이이의 묘소가 떠올랐다. 율곡의 묘는 그를 기리는 자운서원 내에 신사임당 묘와 함께 있다. 퇴계묘소는 조선시대 고위관료나 학자라면 의례히 있는 묘표나 곡장도 호석(둘레석)도 없었다. 문인석과 무인석만 제외하면 어느 필부의 무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봉문 크기만 조금 클 뿐이었다. 언뜻 성현의 무덤치고는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퇴계의 묘소

에서 문득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율곡의 기호학파와 이들의 권세에 밀려 은둔을 강요당한 퇴계의 영남학파가 오버랩 되었다. 무덤이 이를 말해주는 듯했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그런데 이게 어찌면 ‘고인’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계 묘소는 죽어서도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려는 고인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안동의 촌로는 “퇴계선생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라며 “여전히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퇴계는 여전히 스승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앞에 있네 /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떨꼬”

이는 퇴계의 유명한 시다. 여기서 고인은 옛 성현을 말한다. 옛 성현을 본 적도 없지만 성현이 걸어간 학문의 길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찌 그 학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다. 퇴계의 학문하는 자세가 그대로 전해져오는 시다.

퇴계묘소를 들른 후 ‘퇴계녀던길(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퇴계녀던길에서 낭패를 당했다. 이정표만 만들어놓고 산 중턱에서 그만 길이 끊어졌다. 참냉쿨과 풀이 길을 덮어버렸다. 퇴계의 이름을 빌어 안동시에서 퇴계가 청량산으로 가던 옛길을 만들어놓고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보여행을 하다보면 절로 무덤들에 눈길이 닿는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죽음을 떠올려보게 된다. 그런데 필부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은 죽음 이후 그 ‘기억의 유통기한’이 불과 100년도 안 된다. 고작 3세대를 넘지 못한다. 마이클 아이젠버그(워싱턴주립대 교수)는 역사를 “말해지고 행해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 아닐까.



퇴계 이황 영정